##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라(8월 22일)

ㄷ신경 찬 송 찬송가 38장
ㅍ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말씀나눔 요한복음 4장 23절

요셉 케이보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
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
그러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 아침
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갑니다.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공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은 후에 다시 2시간 30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다시 갑니다.
리고 3시간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1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이렇
소중한 일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
기를 즐거해야 합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최용우, 햇볕 같은 이야기 중)

요즘의 시대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편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의 발달, 기술의 발전 등으로 우리의 삶은 예전에 비해 편리해졌습니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큼 이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다시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좋은 기회입니
긴 시간을 들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요셉 케이보처럼 예배를 사모
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기
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 나 눔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누렸던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께하는기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임을
욱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 기 도 가족들끼리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 도 문



## 주를 따라 가는 삶(8월 29일)

사도신경 찬 송 찬송가 430장
대표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말씀나눔 시편 48편 14절

부족 간 전쟁을 치르는 인디언 마을의 주변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몇 명인지,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추장이 먼저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 모든 부족원들이 걷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언의 이런 행동을 모르는 일반 부족들은 발자국 수가 적다고 섣불리 행동하다 생각 외의 많은 적에 당황해서 지는 경우가 아주 많고, 도망칠 때도 발자국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발자국과 헷갈려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뛰어난 음악가이자 의사, 신학자였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많은 부모님들이 다재다능한 자녀로 키우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본, 둘째도 본, 셋째도 본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본을 보이면 자녀는 알아서 성장합니다." 제자란 스승에게 배운 것을 토대로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는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이 놓여 있습니까? 그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먼저 가신 주님의 발자취만 남기십시오. (큐티365/나침반출판사 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앞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는 앞서 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가신 그 발자국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론 그 길이 험난하고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눈 앞에 놓여있는 주님의 발자국이 있음에도 그 길을 벗어나려는 어리석음을 행치 말고, 오직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는 순종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의 나 눔 주님이 먼저 가신 길에서 벗어나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함께하는기도 하나님, 막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빛 되시고 길 되시는 주님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때때로 그 길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우리의 약함을 만지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 보 기 도 가족들끼리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 기 도 문



shalom 경지사 2049 www.kjisa.com PRINTED IN KOREA

2021년 8월호

# 가정을 천국되게 하는
# 가정예배문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For we are to God the aroma of Christ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those who are perishing.
(2 Corinthians 2:15)

기 독 교
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8월 1일)

도신경　　찬　송 찬송가 364장
도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말씀나눔 마태복음 6장 6절

하이든은 독실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았던 사
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명한 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제가 화제로 올랐습니다. 경제적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화제의 초점이었습니다. 저마다
마디씩들 하는 가운데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
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
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굴을 생각하며 골방을 찾고 있습니까? 가장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방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민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
을 창조하셨으므로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
십니다. 어려울 때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매일 매일의 훈련이 뒷받침되어
야 합니다. (원용일 목사, 시편을 통한 매일묵상집 중)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창조하신 하
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문입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기도하며 하
님을 찾기 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
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외의 다른 것에 힘을 쏟기보다는 각자가
도의 처소로 삼고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
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결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 나 눔　기도로 문제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께하는기도 하나님, 날마다 어려운 문제를 문제 앞에 놓입니다. 나의 힘
로 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
해결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 기 도　가족들끼리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 도 문



##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8월 8일)

사도신경　　찬　송 찬송가 94장
대표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말씀나눔 빌립보서 3장 7-8절

미국의 신학자 피터 리브스에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목회자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지 않습니까?" 피터 리브스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마음까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산다고 해도 저절로 지혜가 생기진 않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을 살 수는 없고,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사람들의 존경은 살 수 없죠. 또한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정말 많다면 종교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피터의 말을 들은 학생은 자신의 질문을 몹시 부끄러워하며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물질은 인생의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돈과 성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큐티 365/나침반출판사 중)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의 나 눔　주님을 위해 세상의 유익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함께하는기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 구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 보 기 도　가족들끼리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 기 도 문



## 좌절을 뛰어넘는 감사의 힘(8월 15일)

사도신경　　찬　송 찬송가 429장
대표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말씀나눔 야고보서 1장 3-4절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헤롤드 럿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어 불구자가 됩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런 가운데 그에게 차츰 진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자각하게 됩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화되어 직접 불구자의 모습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연기를 합니다. 그 해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탑니다. 그 상금은 상이용사를 위해 기부합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결연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열 배를 보상받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잃은 것을 넘어 가진 것을 세어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많은 일들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좌절과 시련 너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우리 인생에 넘쳐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깊은 절망과 시련 속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온전함을 만들어 냅니다.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말고 이미 받은 셀 수 없는 복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삶 의 나 눔　절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함께하는기도 하나님, 세상이 주는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잃은 것보다 주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 보 기 도　가족들끼리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 기 도 문